

충남지역 통과의례의 서술체계

정 승 모 (지역문화연구소장)

1. 관혼상제례 연구 현황

전통적인 가례(家禮) 연구와 관련하여 민속학, 또는 한국학을 하는 연구자들 간에는 이 분야를 「관혼상제」, 또는 「일생의례」, 「평생의례」, 「통과의례」 등으로 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다. 「관혼상제」를 적절한 용어로 여기지 않는 연구자들은 이것이 관례 이전의 기자(祈子)나 출산(出産) 등의 의례를 포함하지 못한 데서 그 이유를 찾고, 그 나머지 용어들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관혼상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것이 (개인의 사후 행사인) 제례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관례를 가례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완전한 사회 성원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자나 출산과 관련한 의례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의례의 중심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혼례를 치러 이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려는, 또는 가족성원을 늘리려는 부부, 그리고 이를 통해 부계적 가계계승을 이루려는 집안이 그 중심에 있다. 여성에게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신부의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출산과 그 이전의 기자 풍습은 부계적 가계계승과 관련된 현상으로 한 개인이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출생보다는 관례 등 성년식을 행하고 나서부터다. 갓 대신 초립(草笠)을 썼던 상민(常民)의 경우는 혼례의 한 절차로서 상투를 틀었고 그 이전에도 두레 등 공동노동조직의 일원이 되면서 성년의 자격을 가졌다.

혼례(婚禮) 연구는 혼속(婚俗)에 관한 조사와 통혼권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혼례는 특히 전안례(奠雁禮)와 초례(醮禮)를 분리해서 하는가 혹은 같은 곳에서 하는가에 따라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 두가지를 분리해서 전안례는 처가에서, 초례는 시댁에서 하는 것이 주자가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만 실제 조사된 결과를 보면 각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조사자의 무관심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빠진 보고서를 종종 보게 된다. 혼례복으로서 사모관대(紗帽冠帶)의 착용은 후기로 올수록 신분제도의 문란과 함께 민간의 예식에도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관복의 흉배를 옆으로 달아 격식 자체가 변칙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상례(喪禮)를 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장정이 필요하므로 이것과 촌락공동체 단위와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장례(葬禮)는 조선초기부터 유교의식이 널리 퍼져 매장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초분과 같은 이중장제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같은 매장풍습도 지역적으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례(祭禮)는 특히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각 집안마다 그 형식을 달리할 정도로 다양하나 대체로 이것도 각 보고서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시기별, 지역별, 당파별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락 등에다 만든 ‘민간사당’의 등장은 유교적 제례가 널리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한말 이후의 잦은 주거이동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관혼상제례의 지역적 다양성

1) 관례

관례란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아이에게 갓을 씌워주는 의식이다. 대개는 혼례 날짜를 받아 놓고 관례를 행하기 때문에 혼약이 없이 행하는 관례라는 뜻으로 외자관례〔外上冠禮〕라는 말도 생겼다. 관·혼·상·제의 사례(四禮) 중 관례는 조선말기 단발령 시행으로 다른 3가지 의례에 비해 가장 먼저 쇠퇴한 의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 성년식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나 전통예법을 지켜온 종가(宗家) 등에서 반드시 상투를 틀지 않더라도 혼례식 바로 전에 관례를 행한 사례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례를 마치고 성년이 된 사람은 그 기념으로 친구들을 불러 한 톱을 내는데, 이것을 ‘댕기풀이’라고 한다. 흑립(黑笠), 즉 갓 대신 초립(草笠)을 썼던 상민(常民)의 경우는 관례라는 별도의 의식을 갖지 않고 혼례의 한 절차로 상투를 틀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에는 서울의 성균관이나 지방향교에서 매년 성년의 날에 20세가 되는 남녀 청소년에게 관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적 특색이 나타날지 의문이다. 오히려 대학이나 군대, 직장 등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신입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2) 혼례

유교식 혼례는 전안례(奠雁禮)와 대례(大禮)의 두 절차가 있다. 대례는 본례(本禮)로서 초례(醮禮)라고도 하며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巹禮)로 구성된다. 이 전례(前禮)와 본례가 한 장소, 즉 신부집에서 진행되는가, 아니면 신부집에서는 전안례만 치르고 본례는 신랑집에서 하는가는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 두 절차를 분리하는 것이

주자(朱子)의 《家禮》에 나오는 친영(親迎)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만 대개는 대례까지 모두 신부집에서 치르고 당일, 또는 3일 후에 신랑집으로 돌아온다. 이를 각각 당일우귀(當日于歸), 삼일우귀(三日于歸)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전통혼례’라고 하는 혼례방식은 이 반친영(半親迎)을 말하며, 이 방식 정착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다. 현대와 같은 신식결혼식의 시초는 1890년대에 생긴 ‘예배당결혼’이며, 190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도 불식화혼법(佛式花婚法)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해방 후에는 1961년의 <의례준칙>,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 등의 시행으로 전통혼례는 점차 사라지고 오늘날의 ‘예식장결혼식’이 보편화되었다.

예장지(禮狀紙)는 혼인을 증빙하기 위해 신랑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집으로 보내는 서간(書簡)으로 납폐함(納幣函)에 넣어 보낸다. 예단은 보통은 청색과 홍색의 색깔이 있는 치마감으로 하는데 실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함 속에는 다홍색 겹 보자기와 씨를 빼지 않은 면화와 팔알을 넣은 주머니를 넣는다고 하는데 이 또한 지역과 집안마다 차이가 난다. 함을 지고 갈 때 누가 따라 가는지, 그들을 어떻게 부르든지도 조사대상이다.

함은 신부집 마루에서 받는데 홍보를 덮은 상에 받기도 하고 상위에 시루를 놓아 그 위에 놓기도 한다. 함이 들어올 때는 바가지로 밟아서 깨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당살을 피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함에 손을 넣어 옷감을 집어 그 옷감 색에 따라 부부의 장래를 점치기도 한다.

혼인날이 되면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로, 신부는 원삼과 족두리로 성장하고 예를 올리는데 그 구색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 예복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변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예구들은 마을공동체 또는 친족집단에서 가마와 함께 이러한 혼례도구들을 공동으로 마련한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잣집에서 빌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 신부는 노랑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는 것 외에 별도의 예복을 갖추지 못하고 치르는 혼례도 많았으며, 신분제한을 의식하여 신랑 관복을 흥배를 옆으로 달아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혼인날이 되어 신랑이 신부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면 곧바로 신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처〔下處〕, 또는 ‘사처방’이라고 하여 임시로 마련한 이웃집 혹은 주막에 여장을 풀고 기다린다. 전라도 지방에서 이를 ‘주점’, 또는 ‘주점든다.’고 한다. 사처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신랑에게 상을 차려 보내는 것을 경상도에서는 ‘정반든다.’고 한다.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은 액을 물린다고 하여 대문 앞에 피워 놓은 짚불을 넘고 들어가기기도 하고, 노적 섬을 밟고 내려온 다음에는 ‘동네절’, ‘삼신절’이라고 하여 동네사람들과 삼신에게 절을 드리기도 하며, ‘재뿌림’ 또는 ‘재총’이라고 하여 동네사람들이 뿌린 재를 뒤집어쓰기도 한다. 신부집에서는 하인 혹은 대반(對盤)이라고 하여 신부의 오빠나 동생 또는 가까운 친척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다. 신랑을 따라온 손님을 부르는 명칭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랑이 목기러기를 신부집에 바치는 전안례(奠雁禮)를 올리고 나면 초례청에서 신부와 맞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와 표주박 잔으로 술을 한 모금씩 세 번에 나누어 마시는

합근례(合婚禮)를 한다. 초례청은 신부집의 대청이나 마당에 차린다. 마당에 차릴 때는 차일(遮日)을 치고, 그 아래에 초례상을 마련하고 뒷면은 병풍으로 가린다. 초례상을 차리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상위에는 청색·홍색의 촛대, 송죽(松竹), 장닭, 암탉, 밤, 대추, 붉은 팔, 검은 콩 등을 놓는다. 정수물동이, 종지불을 켜 떡시루, 가래떡을 용모양으로 말아 놓은 용떡, 문어포로 오려 만든 봉황 등이 올라가기도 한다. 초례상 좌우에는 작은 상을 마련하여 술잔과 술병, 그리고 합근례 때 사용하는 표주박잔을 청실과 홍실로 감아 올려놓는다.

신랑은 대문을 등지거나 초례청 오른쪽, 즉 동쪽에 서고 신부는 대문을 바라보거나 서쪽에 선다. 신부 양옆에는 수모, 혹은 하님이라고 하는 시중드는 여자가 두 명 선다. 신랑 옆에는 대반(對盤) 역을 맡았던 신부측 사람 두 명이 선다.

다음날 신부 측의 동네주민들이 모여 ‘신랑다루기’, 또는 ‘동상례’를 한다. 신랑이 혼례당일로 돌아가는 경우는 재행(再行), 즉 신부집으로 다시 갈 때 이러한 의식을 행한다.

신부가 시집으로 가는 것을 우귀(于歸)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당일우귀와 삼일우귀 말고도 달을 넘기는 ‘달묵이’, 철을 넘기는 ‘철묵이’, 해를 넘기는 ‘해묵이’도 있으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신부집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싸오는 혼사’라고 하여 신랑집에서 혼례식을 갖는 등의 갖가지 변형도 있다.

양반집 신부는 교꾼〔轎軍〕 네 명이 드는 사인교(四人轎)를 타고 상객(上客), 짐꾼, 하님, 수모 등 많은 사람이 따른다. 상민집 신부는 두 명이 드는 가마를 타고 온다. 신부가 마가 신랑집 가까이 오면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신부에게 물어 온 신부동네의 잡귀를 물리친다고 하여 묵화씨, 소금, 콩, 팥 등을 가마에 뿌리기도 하고, 얼굴을 보자기로 가리고 대문 양옆에 피워 놓은 짚불을 넘게 하기도 한다. 신부가마가 대문을 들어서면 대청 앞에 가마를 세우고 신랑이 가마 문을 열어 신부를 맞는다. 가마 위에 었었던 호피나 신부가 깔고 앉았던 방석을 지붕 위로 던져 올려 신부가 도착하였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때 신랑 식구들에게 신부가마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본가로 돌아온 신랑에게 부엌에 들어가 부뚜막에 오른발을 얹고 국수 세 젓가락을 먹게 하며, 마루로 올라오는 신부에게는 솔뚜껑을 밟고 양푼에다 숟가락을 소리나게 떨어뜨리게 하는 등의 주술적 행위가 지방마다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주당살(周堂煞)과 같은 도교적 신앙에서 비롯된 행위이거나 재뿌림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액을 없애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부가 시집을 때 가지고 오는 혼수 중에는 지역에 따라 반드시 해와야 하는 품목이 있다. 예컨대 강원도 강릉지방에서는 신랑이 입을 옥양목 두루마기와 베로 만든 도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혼수품목이었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혼수의 규모나 내용은 달랐지만 대체로 그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계층간의 격차는 커지고 지역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가운데 신부집의 물질적인 부담이 점점 커 가는 경향이 있다.

신부는 시가에 와서 시부모와 친척들에게 폐백이라고도 하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올리고 시집살이를 시작한다. 첫 농사를 짓고 난 후 신부는 ‘근친채반’이라고 하여 직접 수

확한 곡식으로 술과 떡을 만들어 친정으로 가는 근친(覲親)을 행한다. 신부가 근친을 다녀와야 비로소 혼례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 · 장례

유교식 상 · 장례에서의 상장(喪裝)과 절차는 상을 당한 사람들의 슬픈 감정과 효(孝)의 관념 뿐 아니라 본종(本宗) 위주의 친족관계 등 유교에서 지향하는 사회질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점은 특히 오복제도(五服制度)에 잘 나타나 있다. 상례절차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흉(凶)의 상태에서 길(吉)의 상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가(家)의 질서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4가지 가례 중에서 상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 일어나 이미 조선중기가 되면 이에 관한 책들과 의례전문가들이 많이 나왔다. 이는 오히려 다른 의례에 비하여 지역적 다양성이나 당색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성복 전까지 남자는 좌단(左袒)을 하거나 도선(徒跣) 상태로 있는데 이러한 상장은 시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망인의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복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다는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경황이 없는 때라 음식을 대신하고 잡귀도 쫓는 의미로 팔죽을 끓여 손님을 대접하는 지역도 있다. 상주들이 상복을 입기 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성복제(成服祭)를 행하는 지역도 있다. 성복하는 날 비로소 상주와 형제들이 죽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후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전(朝夕奠)을 올리고 상식(上食)을 베푼다.

장례(葬禮) 방식은 각자의 내세관이나 집안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화장(火葬)과 매장(埋葬)으로 나눌 수 있으나 조선초기부터 매장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매장도 관을 함께 넣는가, 뼈고 시신만 넣는가에 따라 입관(入棺) 방식과 탈관(脫棺, 또는 退棺) 방식이 있다. 이 중 후자는 18세기 중반 이후로 경기·충청지역에서 주로 유행하였는데, 시신이 빨리 육탈(肉脫), 즉 뼈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것이 좋다는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초분’이라고 하는 장례방식은 흔히 이중장(二重葬)이라고 하여 장례를 두 번 지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은 매장의 한 변형으로 초빈(草殯), 즉 장사지내기 전에 집밖의 한가한 곳에다 임시로 마련한 빈소를 별도의 장례방식으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초빈을 만드는 이유는 대개가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연이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어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상주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 있는 등 장기 출타로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시신을 묻을 마땅한 장지(葬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며, 셋째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先塋)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탈한, 즉 뼈만 남은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경우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 지역인 지리산 남서 및 남동 일대의 지역에서는 이 중에서 주로 세 번째 이유로 초빈을 만들어

시신을 모셨다가 주로 윤달을 택하여 장사를 지내는 풍속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봉분(封墳)을 이루면 봉분제, 성분제(成墳祭), 또는 평토제(平土祭)를 갖는다. 그에 앞서 타성(他姓)에게 부탁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봉분을 쌓을 때 땅을 단단히 다지는 것을 “달공질한다.”, “달공다진다.”, 또는 ‘달공’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달고(撻固), 도고(搗固) 등으로 쓴다. 행여 때와 마찬가지로 달공도 타성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고비를 주는 것도 같다. 봉분은 부부의 묘를 어떻게 자리잡는가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는 각분(各墳), 붙어 있으나 봉분을 별도로 하는 쌍분(雙墳), 봉분을 같이 하는 합폄(合窆)의 세 종류가 있는데 집안 전통에 따라 주로 쌍분이나 합폄을 한다.

신주(神主)에다 제주(題主)를 마치면 신주를 영좌에 봉안하고 함에 넣은 혼백을 그 뒤에 세워 집에 돌아오면 반곡례(反哭禮 또는 反魂禮)를 행하여 장례의식을 마치는데, 신주를 제작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장례의 마무리가 지역, 또는 집안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장례에는 상여를 매는 일이나 묘광을 파는 일 등에 일정한 수의 장정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어 촌락공동체의 규모가 상·장례의 특성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상·장례와 관련된 마을조직으로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상계(喪契), 상포계(喪布契), 연반계(延幡契) 등의 계조직이다. 촌락은 물론 그보다 큰 지역공동체(地域共同體) 역시 상·장행사가 관련될 때는 조직의 한 단위가 된다. 그러나 자연촌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곳이거나 도성(都城) 또는 그 주위에는 촌락 구성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 샅을 주고 동원할 수 있는 소위 ‘상두군’ 조직이 결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농사를 겸하면서 반직업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조직을 일컬어 향도계(香徒契), 또는 상도계(喪徒契)라고 하였다.

불교의 장례법은 다비(荼毘)라고 하여 시체를 화장하는데 이는 주로 출가한 승려가 죽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 신도들은 유교식 상례와 절충한 방식을 택한다. 즉 가례에 따라 장례를 치르면서도 고인의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薦度)하려는 뜻으로 스님을 모셔와 조객과 함께 불경을 송독하며, 생전에 준비해 둔 다라니경을 입관할 때 덮는 등의 불교식 절차를 넣는다.

불교에서 거행하는 천도제(薦度齋)는 죽은 자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생전에 미리 극락 길을 닦는 예수재(豫修齋)와 함께 이 의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게 발달되었다. 그 진행 절차는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할 보살과 영가, 즉 죽은 조상을 모시는 시련(侍輦), 영가를 대접하는 대령(對靈), 영가가 생전에 지은 업을 씻는 관욕(灌浴), 법회도량의 옹호를 신중계 청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 부처님께 영가의 왕생을 기원하는 불공, 영가의 마지막 길에 식사를 대접하는 시식(施食), 영가를 보내며 이승의 인연을 소대(燒臺)에 태우는 봉송(奉送) 등으로 구성된다. 시련에서는 영가의 위패나 사진도 함께 나가 동참한다. 장례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에 올리며, 백일째 되는 날에도 올린다. 근래에 들어 유교식 상례를 간소화하면서 탈상도 백일, 또는 49일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4) 제례

제례는 국가의례로부터 가족단위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그 시행단위나 주체에 따라 내용과 형식 및 의미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가례의 핵심인 사례(四禮)의 하나로서의 제례를 언급하려는데, 특히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각 집안마다 그 형식을 달리할 정도로 다양한 것이 제례다. 제례와 관련한 기존의 보고서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대체로 이것도 시기별, 지역별, 당파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가례서(家禮書)에 나와있는 제례의 종류를 보면 제사시기에 따라 시제(時祭)·삭망차례(朔望茶禮)·속절차례(俗節茶禮)·천신차례(薦新茶禮)·이제(禰祭)·기제(忌祭)가 있고 제사장소에 따라 집안에 제청(祭廳)을 마련하는 경우와 가묘(家廟), 사당(祠堂), 사우(祠宇) 등에서 지내는 사당제(祠堂祭) 또는 사제(祠祭), 그리고 묘에서 지내는 묘제(墓祭)가 있다. 이것들은 상례를 마친 다음에 지내는 제사이고, 상중(喪中)에 지내는 제사로는 우제(虞祭)·소상(小祥祭)·대상(大祥祭)·담제(禫祭)가 있으며, 길제(吉祭)가 이 둘을 잇는 상징적인 제사다.

시제는 철을 따라 일년에 네 번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일년에 한 번, 즉 삼짇날이나 중양절 제사로, 아니면 속절제로 이를 대신하고 지내지 않았다. 중양절에 지내는 제사는 조선후기 이후 특히 영남지방에서 부조묘(不祧廟)를 모신 집안들을 중심으로 행해져왔다. 이 부조가 인정된 조상에 대한 시제는 각별히 중일(重日)을 택하여 삼월 삼짇날이나 구월 중양에 지내는데, 특히 중양 때가 되어야 햇곡을 마련할 수 있어 첫 수확물을 조상에게 드린다는 의미도 갖는다.

차례는 차사(茶祀)라고도 하며 원래는 음력으로 다달이 초하루, 보름, 생신에 간단히 낮에 지내는 제사이나 이것도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나 천신제의 제사방식이 되었다. 이제는 고비(考妣), 즉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로 음력 9월중에 날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이나 기제사에 비하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기제는 고조(高祖) 이하의 조상을 대상으로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다. 묘제, 또는 묘사(墓祀)는 기제사 범위를 벗어난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신주를 묘에 옮기기 전에도 사당제와 함께 묘제를 하는 관행이 있었고, 사당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묘에서 제를 지내는 관행이 상민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갔다. 묘제의 경우 산신제단의 위치, 묘제에서의 산신제 순서 등도 가문에 따라 다르다.

기제사의 봉사(奉祀) 대상은 사대조고비(四代祖考妣), 즉 고조부모까지인데 여전히 고례(古禮)를 따라 삼대봉사나 이대봉사를 하는 집안 또는 지역도 있었다.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전날 밤에 준비를 마치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려 지내는데, 요즈음에는 풍속의 변화로 그 전날 초저녁에 지내는 경우가 많다. 원래는 해당 신위만 모시면 되는데, 부부 양위(兩位)를 합설(合設)하는 곳이 많다. 이 때 신위의 위치는 고(考)가 서쪽, 비

(妣)가 동쪽이다.

제수(祭需)의 기본은 주·과·포(酒·果·脯)로, 메〔飯〕·국〔羹〕·탕(湯)·적(炙)·나물〔菜〕·국수〔麵〕·떡〔餅〕·포(脯)·해(醢)·식혜(食醢)·생과(生果)·조과(造果)·제주(祭酒)·간장 등을 준비한다. 제수를 상에 진설(陳設)하는 방법은 지역, 당색, 집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주부는 제물을 마련할 때 오뉴월이라도 버선을 벗지 못하고 젖을 먹이거나 가려운 데를 굵은 손으로 제물을 만지지 않는 등 정결함이 요구되었다. 제물을 꺾어놓고 남은 것을 제지내기 전에 먼저 먹지 못하고, 조상이 생시에 드시지 않던 것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술은 제사의 으뜸이기 때문에 생전에 드시지 않았더라도 올린다. 제사상을 나르는 종에게는 새옷을 입혔으나 색저고리 등 색이 들어간 옷은 입히지 않았다.

참사자(參祀者), 즉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맨 앞줄은 과일을 놓는 줄이다. 그러나 그 순서는 대략 세 가지 즉, 조율이시(棗栗梨柿), 조율시이(棗栗柿梨), 홍동백서(紅東白西)의 기준으로 대추·밤·감·배 등 생과를 놓는데 앞의 두 경우는 왼쪽부터 진행하여 오른쪽, 즉 동쪽에 조과를 놓는 반면 홍동백서의 기준에서는 오른쪽부터 조·시·조과·이·율(棗·柿·造果·梨·栗)의 순서로 왼쪽으로 나간다. 둘째 줄에는 포와 해를 진설하는데, 좌포우해(左脯右醢), 또는 좌포우혜(左脯右醢)라고 하여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해(또는 식혜)를 놓는다. 단 영남의 남인(南人) 집안처럼 좌우의 기준이 참사자가 아니라 신위인 경우는 참사자를 기준으로 할 때와 반대가 된다. 포는 두동미서(頭東尾西)라고 하여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포가 아닌 어물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기준을 적용하는 집안도 있다. 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북어포를 쓰지만 대구 포나 오징어포를 쓰는 지역도 있다. 셋째 줄, 또는 넷째 줄에는 탕을 놓는데 신위를 기준으로 내탕외적(內湯外炙)과 외탕내적(外湯內炙), 즉 탕을 안으로 놓는가 아니면 적을 안으로 놓는가는 역시 당색에 따라 구분된다. 탕은 어동육서(魚東肉西)의 기준으로 왼쪽부터 육탕(肉湯), 소탕(蔬湯), 어탕(漁湯)의 순서로 놓는다. 적줄에는 국수, 적, 떡의 순서로 놓고 다섯째 줄에는 반, 잔, 갹의 순서로 놓는데, 이것도 당색이나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위는 사당(祠堂)이나 벽감(壁龕)에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로,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紙榜)을 써서 모신다. 지방은 조선중기까지 널리 행해졌던 윤회봉사(輪廻奉祀), 즉 자식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맡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조선후기 이후로는 다락 등에 설치한 벽감과 함께 별도의 사당채를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행한 것으로 유교적 제례가 널리 일반화되어 갔음을 나타낸다. 특히 벽감은 일제가 말기에 우리 고유의 신앙을 탄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겨났다.

진설은 신주나 지방이 모셔지기 전에 미리 잔·수저·실과·채를 차리고 참신과 강신이 끝난 후에 나머지를 차리는데 이 역시 집안에 따라 달라 삼헌(三獻)에 맞추어 각각 삼적(三炙; 어적, 육적, 소적)을 순차로 올리기도 한다. 사신(辭神) 때 지방과 축문을 태우고 신주가 있는 경우는 이를 다시 사당에 모시는 납주(納主)를 하는데 이 또한 집안

전통에 따라 다르다. 제사를 끝내고 친지나 이웃과 제사음식을 먹으며 복을 나누는 음복(飮福) 행사를 준(饌)이라고 하는데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에서는 근신하는 의미에서 이를 생략하는 집안도 있다.

5) 가례조사 때 유의할 사항들

앞서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례는 시기적으로 변해온 데다가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사 자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도 있다. 심지어는 당색이 다른 집안끼리, 또는 같은 당색이라도 지역전통이 다른 집안간의 통혼으로 인하여 여러 기준이 뒤섞이는 ‘잡종’ 의례 관행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계획되고 통제된 가례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즈음처럼 ‘구제발굴사업’에 편승하여 ‘구제민속조사’를 행하는 일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충남지역의 가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된 조사가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사대상선정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는 피화(被禍)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고 가문에 진설도 등이 내려오며 당색이 분명한 집안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이색(二色)이 공존하는 집안에 대한 조사다. 셋째는 집안 자체에 가례서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가례서의 저자와 관련있는 집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넷째는 족보상 통혼권(또는 망)이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는 집안에 대한 조사다. 충남지방의 일부는 향제(鄉第)라기보다는 별서(別墅), 또는 이 두가지가 공존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조사도 가례의 지역성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리라 예상된다.

조사대상 선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질문사항이다. 질문에 응하는 제보자들은 항상 자신의 경험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의아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또한 질문자와 제보자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질 때도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사상차림이 신위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참사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등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을 달리하여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혼상제례 조사를 위한 질문사항의 예

☐婚禮

- 親迎과 半親迎 / 대례장소가 신랑집인가 신부집인가
- 신행 : 當日于歸 / 三日于歸 / 달묵이 / 해묵이(경상, 전라) / 신행

- 再行/引再行-因再行/三日再行/재행 택일(기수 달)
- 주당살 등 제액방식 / 부뚜에 오른발 올리고 국수 먹기 / 대문 마루에서 양푼 술
가락 떨어뜨리기, 바가지 밭아 깨뜨리기, 술뚜껑밟기 / 문전 불 쥔단 / 신부얼굴 보
자기 / 재뿌림 /……
- 함만들기 / 혼수품 / 필수 혼수품
- 신랑 동반자 및 명칭
- 신부 동반자 및 명칭
- 정방 / 下處 / 주점 /
- 신랑 신부 의례복 종류 및 명칭
- 혼구의 소유, 또는 대여처 및 조건 / 혼계
- 동상례 / 신랑달기 /
- 신부 아랫목 앉히기
- 근친 시기 및 ‘이바지’ / 근친채반

□ 喪・葬禮

- 성복제 / ‘반포’ ‘거상옷’
- 상여계 / 상두꾼
- 입관 / 탈관 (입관 → 탈관 시기)
- 목곽 / 회곽 / 석곽 / 석관, 구덩이 형태, 바닥
- 각분 / 쌍분 / 합핍/ (*각 분 → 쌍분의 이유)
- 평토제 / 반혼제

□ 祭禮 : 차례 / 묘제 / 시제 및 節祀

- 사당 / 벽감 / 감실 / 위패 / 지방 /
 - 벽감위치(마루, 안방웃목시렁)
- 四節茶禮 ;
 - 정초 떡국 / 단오 수박 / 추석 송편 / 중구 햇곡
 - 正朝, 寒食, 端午, 秋夕 등 4명일 중 차례(집 / 산소)와 성묘
 - 重陽(무후 객사 / 불천위)
 - 종가 / 지가 구분(예;정초 추석에만)
- 차례 / 묘제 / 시제의 시기와 제사범위
 - 중앙과 10월 시제의 관계
 - 삼짚(삼짚날)과 3월 보름 / 3월 시제의 관계 / 기호학과와의 관계
 - 삼짚과 중구(기호-불천위만 중구)
 - 친기 / 4대까지 / 5대 이상
 - 삼짚날 / 단오 / 중앙 / 동지의 행사

o 묘제시기 / 제사범위

- 성묘(=瞻掃封塋)와 묘제 차이
- 墓閣 / 齋
- 한식 때 묘제 여부
- 각 묘제 때 讀祝 / 無祝 및 單獻 / 三獻
- 묘제 진설법 / 제수 / 술+포 /
- 산신제(后土之神祭)의 순서 / 위치 및 의미-좌고우저 등)

□ 祭祀

기준 ; 신위(음/양) / 진설자(양)

진설기준 ; 음양 / 기수우수 / 생숙 / 천지인 / 천산지물

좌우의 구분 / 좌고우비

동서의 구분 / 동고서비

단위 / 양위합설 / 양위각설

반 / 잔 / 갹 + 시접(단위 / 양위, 반갱 앞)

과일배치 / 과일꼭지의 상하(노/소)

탕과 적

단탕(두부 어 육) / 3탕 / 5탕 / 7탕

삼(獻)적(육 / 어 / 계雉)

적(蒸 높임)과 전(튀김 낮춤) / 좌적우전

산적, 느르미(빈-밀가루, 부-참쌀), (적 위의)고명 재료, 형태

포와 해(=혜, 감주?)

포의 앞 / 뒤, 포 장식

魚腹在內 (* 魚의 종류 / 無 뼈 등 금기 魚)

나물(산나물 여부, 삼색-고사리 / 도라지 / 청채 / 무채 / 숙주)

生熟의 구분 / 생동숙서

병(편) / 면 / 동병서면

청밀과 조청(빈부 / 단설 합설에 따른 위치)

주부 아헌(*기제사 때 여자들의 拜禮 및 위치)

축문의 有無와 제사절차

<참고문헌>

▣ 통과례 전반에 대한 주요논저

- 김춘동, 1970 「韓國禮俗史」, 『한국문화사대계』 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이민수 편역, 1975 『관혼상제』, 을유문화사.
장철수, 1975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한국문화의 전통성 : 관혼상제분야」 『한국문화인류학』 7.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민속대관 I (사회구조, 관혼상제 편)』.
한용득, 1980 『新舊관혼상제』 弘新新書.
한중수 1981 편, 『(四禮便覽新舊) 冠婚喪祭禮大典』 명문당.
장철수, 1984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광규, 1985 『한국인의 일생』, 형설출판사.
이현홍, 1995 「고성지역의 통과례」 『한국문화연구』 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출산의례 관련 주요 논저

- 안은희, 1972 「産俗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고부자, 1977 「제주도의 育兒俗 : 제주도 産俗」 『국제대학논문집』 4·5 合集.
이경복, 1979 「조선시대 産俗研究」 『한국민속학』 11, 민속학회.
지춘상, 1979 「진도의 통과례 (其一) : 産俗과 婚俗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10·11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권우행, 1980 「解産俗考 : 경남 양산군 원동면 중리와 수포리를 중심으로」 『민속문화』 2, 동아대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임양순, 1981 「産期別 食品禁忌 習俗」 『한국민속학』 13, 민속학회
배도식, 1981 「한국의 産俗」 『민족문화』 7,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최호림, 1985 「조선시대 胎室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7, 한양대학교.

▣ 관 · 계례 관련 주요논저

- 여춘구, 1976 「王世子嘉禮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윤병식, 1976 「冠禮와 笄禮」 『仁荷』 13, 인하대학교.
고복남 1980 解題, 「소현세자 가례도감의궤」 『嘉禮都監經國學資料』 36.
김정옥, 1981 「조선조 왕세자 冠禮 연구」 『韓社實專論文集』 6.
박대순, 1987 「조선시대 冠禮의 史的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혼인 및 혼례 관련 주요논저

- 안병태, 1972 「婚俗의 親迎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5, 민속학회
- 김완섭, 1975 『한국혼인고 : 법제와 혼속』, 고려대출판부.
- 여중철, 1975 「동족부락의 통혼권에 관한 연구」 『인류학논집』 1, 서울대인류학연구회
- 최재율, 1975 「농촌 통혼권의 성격과 변화-구림리의 婚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7,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 박정순, 1975 「조선왕조 婚俗을 중심으로 한 여성지위考」 『인천교대논문집』 9.
- 고부자, 1977 「제주도의 혼속」 『한국민속학』 10, 민속학회
- 최재석, 1977 「제주도의 부락내혼과 친족조직」 『인문논집』 22, 고려대학교.
- 이광규, 1977 「동성동본불혼의 사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회지 8, 1977
- 배도식, 1978 「경남지방의 혼속考」 『민속문화』 1, 동아대 한국민속문화연구소.
- 최재석, 1978 「제주도의 死後婚」 『한국학보』 13, 일지사.
- 박종만, 1979 「조선시대 혼속에 관한 一考察」,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 1979 「婿留婦家婚俗의 변천과 그 성격 : 조선시대 가족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강용권, 1980 「虛婚에 관한 연구」 『민속문화』 2, 동아대 한국민속문화연구소.
- 박용숙, 1980 「조선후기의 혼인실태 : 1717년의 丹城戶籍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4, 부산대.
- 김중명, 1981 『한국의 婚俗研究』 대성문화사.
- 김수택, 1982 「전통혼속에서의 納徵禮에 대하여」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 정승모, 1983 「통혼권과 지역사회체계연구」 『한국문화인류학』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조강희, 1984 「영남지방의 ‘婚班’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민재, 1986 「婚俗의 大禮에 대하여」 『월산 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
- 전경수, 1987 「진도 하사미의 대바구혼인」, 『한국문화인류학』 19 한국문화인류학회
- 박혜인, 1988 『한국의 전통혼례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 강병식, 1995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및 출산 실태 연구」 『사학지』 28, 단국대 사학회

■ 상·장례 관련 주요논저

- 유철희, 1970 「한국장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특히 분묘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최덕원, 1972 「다도해지역의 草墳 연구」 『향토』 9·10.
- 이두현, 1974 「葬制와 관련된 무속연구 : 특히 초분과 셋김굿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6, 한국문화인류학회
- 최기복, 1979 「유교의 喪禮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이남식, 1979 「한국山村의 扶助交換에 관한 연구 : ‘가실리’ 마을의 壽宴과 喪禮를 중심

- 으로」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성기희, 1980 「殮襲考」『관동대논문집』 8.
- 김군태, 1982 「풍장굿 小考」『송전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2.
- 장철수, 1984 「유교상례의 초혼에 대하여」『이두현교수회갑논집』.
- 김선평, 1984 「우리나라 상례와 상여의 특징」『관동어문학』 3, 관동대학교.
- 이두현, 1985 「장례의 연회考 : 특히 진도의 다시래기를 중심으로」『서울대사대논총』 30.
- 이필영, 1985 「한국고대의 장례습속에 대하여 : 三國志魏志東夷傳을 중심으로」『靑林』 27,
- 장관진, 1986 「함양지방의 상례속고」, 『국어국문학』 25, 부산대학교.
- 고부자, 1987 「제주도의 喪俗」, 『한국민속학』 20 한국문화인류학회
- 장관진, 1988 「산청지방의 상례속고」, 『국어국문학』 25, 부산대학교.
- 정승모, 1990 「상·장제도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한국 상장례』, 미진사.
- 서인석, 1991 「이중장제에 대한 소고 -진도지역 초분을 중심으로-」『호남향사회보』 2, 호남향사회
- 김용덕, 1994 「상장례풍속의 사적고찰」『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 제례 관련 주요논저

- 이병혁, 1974 「祝祭文考 : 특히 자료정리를 중심으로」『우현정중환박사환력기념논문집』.
- Roger L. Janelli, 1974 「Anthropology, Folklore and Korean Ancestor Worship」『한국 문화인류학』 6,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길표, 1975 「이조시대의 祭饌考 : 祭物과 設饌을 중심으로」『성신여대연구논문집』 8.
- 임돈희, 1975 「한국 조상숭배 의식의 연구」, 『문화인류학』 7.
- 이광규, 1977 「친족집단과 조상숭배」『한국문화인류학』 9, 한국문화인류학회
- 전경수, 1977 「진도 下沙溪의 의례생활 : 조상숭배의례의 생태적 기능을 중심으로」『인류학논집』 3, 서울대 인류학연구회.
- 이수은, 1981 「영남지방의 제례에 관한 조사연구 : 祭物과 陳設을 중심으로」계명대 석사.
- 석대권, 1983 「기제사의 규범과 관행의 비교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최길성, 1983 「한국 조상숭배의 연구 : 연구사와 개념을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 15.
- 홍정주, 1983 「조선왕조 시대의 祭具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조미경, 1984 「조선조 시대의 祭器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호림, 1984 「조선시대 묘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김광역, 1986 「조상숭배와 사회조직의 원리 : 한국과 중국의 비교」『한국문화인류학』 18, 한국문화인류학회
- 성태규, 1989 「시제연구를 위한 한 시론」『충청문화연구』 1,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
- 이창기, 1991 「제주도의 제사분할」『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간행위원회
- 김호태, 1994 「안동지방의 외손봉사에 대한 고찰」『안동문화연구』 8, 안동문화연구회
- 정승모, 1997, 「조상제사2 - 조선후기」『조선시대의례자료집성(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